KP케미칼, 2005년 영업실적 회복

CJ투자증권, 과거부실 정리에 신용회복 ... 중국 화섬원료 수요증가도

CJ투자증권은 KP케미칼에 대해 2004년 4/4분기 영업실적이 소폭 둔화됐으나 2005년에는 본격적인 회복이 예상된다고 투자 의견 <매수>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6500원을 제시한다고 2월7일 발표했다.

CJ투자증권 이희철 애널리스트는 중국 등의 일시적 수입감소와 가격하락에 따라 2004년 4/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으나 경상이익은 예상보다 다소 많았다고 주장했다.

또 KP케미칼이 2004년 11월 호남석유화학에 인수되면서 과거 부실을 대부분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, 신용도 회복 등 직간접적으로 수익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.

이밖에 2005년에는 중국의 화섬원료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KP케미칼의 수혜가 예상되며 본격적인 <턴어라운드>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.

따라서 2005년 영업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호전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의견은 <매수>를 유지하며 약 20%로 추정되는 채권단의 잔존 보유지분이 해소된다면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.

<화학저널 2005/02/15>